

가짜 눈물을 흘리고서는 파쇼몽둥이를

최근 남조선에서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있다. 한초한초가 생명을 다루는 귀중한 초기구조시간에 제대로 구조작업을 진행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얼마든지 살릴수 있었던 수백명의 생명을 바다속에 수장시킨 박근혜 《정부》를 성토하는 유가족들과 정치인, 대학생, 노동자를 비롯한 각계층의 시위와 집회가 련일 남조선 곳곳에서 벌어지고있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은 인민들의 이 분노한 함성에 귀를 기울이고 저들의 죄과를 인정할 대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지난 19일에 박근혜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여기서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말을 내뱉으며 눈물까지 흘리었다. 그의 이 《사과》늙음과 눈물이 과연 진정인가 하는것은 《대국민담화》발표를 전후

하여 남조선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일들이 충분히 보여주고있다. 지난 17일과 18일에 서울과 광주, 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아이들을 돌려달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가만히 있으라.》는 구호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벌리었다. 그러자 집권세력은 현장에 수많은 경찰부력을 동원하여 시위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무자비하게 탄압하던 끝에 이틀동안에 무려 200여명에 달하는 시위자들을 강제리행해가는 파썸적폭거를 저질렀다.

보수패당은 또한 3만명의 각계층인민들이 참가하여 25일에 진행한 《《세월》호참사 제2차범국민초불행동》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 《《세월》호는 학살이다.》, 《《련행자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부르는 시위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수심명을 련행했다.

그보다 앞서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동상우에서 《세월》호침몰사고의 책임을 요

박근혜는 몰려가라.》는 구호막을 펼치고 시위를 벌리던 대학생전원이 련행되었는가 하면 22일 《정부》청사 앞에서 《《세월》호참사 유가족요구 전면수용》을 웨치던 대학생 10여명이 련행되었다.

지어 박근혜패당은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참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적수공권의 내학생시위를 총기까지 휴대한 경찰을 동원하여 진압하는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뿐이 아니다. 박근혜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시 위 참 가 자 들 을 야 수 적 으 로 탄 압 하 는 남 조 선 경 찰



경 찰 의 탄 압 을 반 대 하 여 투 쟁 하 는 남 조 선 대 학 생 들

화약더미에 불을 달리는 보수호전광들

지금 남조선에서 약탈하게 벌어지는 반북대결 모략소동의 앞장에는 군부의 대결망나니들이 서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세월》호침몰사고이후 국방부 장관 김관진씨는 무슨 《국지도발가능성》을 들고나오면서 《값비싼 대가》니 뉘니 하고 공화국을 약에 의처지 걸고들었다. 이에 덩달아 그의 수하줄개들도 《대북진호정보감청》내용이라는것을 공개하면서 《4월 30일전에 큰일이 일어날것》이라느니, 《북이 큰 한방을 준비중》이라느니 뉘니 하고 떠들어댔다. 그런가하면 무인기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면서 터무니없이 《북소행》설을 운운하였다. 지어 국방부 대변인이라는자를 내세워 그 무슨 《나라 아닌 나라》니, 《빨리 없애져야 할 나라》니 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담질로 공화국의 존엄높은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북남관계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최악의 특대형도발로서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를 걷잡을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의 군부패당은 조선반도의 최대열점지역인 서해지역에서 정상적인 경계군무수행중에 있는 공화국의 함선에 총포사격을 가하다 못해 적반하장격으로 그 누구를 《도발자》로 매도해나섰다.

남조선군부패당이 《북소행》설에 얼마나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은 버려진 이등식변 소문편을 《북무인기》로, 물기들을 《북로탄발사》로 우겨대다가 세계앞에 개교망신을 당한것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하대던 남조선군부가 최근에 와서 왜 이런 극단적인 반북도발행위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천식이 발작하는것처럼 집권위기에 몰릴 때마다 반공화국도발소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의 상투적수법이고 고질수 없는 병적증상이다. 여기에는 《세월》호참사로 성난 민심을 탄대로 돌리고 다가는 지방자치제선거에서의 참패를 만회해보려는 불순한 기도도 깔려있다.

하지만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찬 《북풍》조작책동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의 언론들과 각계층인민들은 남조선군부패당의 반북대결소동을 두고 《《세월》호난국을 타개해보려는 국방부》, 《제 정신없는 국방부》, 《민심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비난해나서고있다.

오늘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반공화국대결광기는 극도에 이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군합동참모본부장 그 무슨 《4세대전쟁》을 운운하며 발표한 《통일을 위한 5단계군사전략》이라는것이 그 대표적시례이다. 전쟁개시로부터 시작하여 종결까지 침략으로 일관된 이 도발적인 문서는 곧 동족과의 군사적대결, 체제대결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전쟁선언, 대결선언이다. 남조선군부패당이아말로 민족의 머리우에 엄청난 재난을 몰아오는 민족의 재앙거리가 아닐수 없다.

이런자들때문에 조선반도에서 민족이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날수 있다. 남조선군부패당은 동족대결과 전쟁행위는 수치스러운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류 현 철

시간은 약이라 했다. 아무리 가슴아플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것은 흥모같이 어차피 세월의 이끼속에 덜어기마련이다. 허나 많은 세상에서 원통하게 숨진 녀는 구천에 사무쳐 사람들에게 생의 메아리를 남기는 법이다.

비애와 슬픔의 격랑으로 잠들줄 모르는 저 남녘의 볼도알았다. 지금 거기서는 진귀의 몸이 된 수백명 아이들이 저주로운 사회, 저주로운 사람들을 원망하며 련호는 말만 남겨둔채 배와 승객들을 버리고 저만이 살것다고 탈출했다. 이른바 《구조대원》이라고 하는 해경과 군부는 구조를 애라게 호소하는 유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안묵속 두러워 피눈물나는 참상을 옆에서 지켜볼뿐 바다물속에 선뜻 뛰어들기를 주저했다. 그로록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있는 아이들을 앞에 놓고 자본가들은 먼치 구조작업의 리용부러 계산하며 수완말만 뒀었다. 언론은 언론대로 자본과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 진실을 버렸고 《정부》는 그들대로 지지도가 떨어질가보아 여론판리에 나 신경을 썼다. 고작 《정부》가 한 일

잠들줄 모르는 청혼들

였을 아이들이였건만 너무도 억울하게 생죽음을 당한것이다.

에당초 살리려는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지난 4월 16일 아침 8시 48분부터 배의 선체가 완전히 뒤집혀져 침몰한 닛 2시 37분까지는 무려 6시간, 그간 선장이나 선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남겨둔채 배와 승객들을 버리고 저만이 살것다고 탈출했다. 이른바 《구조대원》이라고 하는 해경과 군부는 구조를 애라게 호소하는 유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안묵속 두러워 피눈물나는 참상을 옆에서 지켜볼뿐 바다물속에 선뜻 뛰어들기를 주저했다. 그로록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있는 아이들을 앞에 놓고 자본가들은 먼치 구조작업의 리용부러 계산하며 수완말만 뒀었다. 언론은 언론대로 자본과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 진실을 버렸고 《정부》는 그들대로 지지도가 떨어질가보아 여론판리에 나 신경을 썼다. 고작 《정부》가 한 일

이란 청와대로 향한 유가족들의 앞길을 가로막은것이그류언비어류모죄요 뭐요 하는 따위의 업모와 탄압뿐. 그러니 그속에서 정말로 내버려진것은 꽃망울같은 아이들의 생명이였다.

얼마나 출고 어둡고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으랴. 살고싶어,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아이들의 그 모습 그러모면 가슴이 쫓기는듯 실다.

희망의 재난앞에서 한가닥 희망의 끈을 잡고 구원의 손길을 애라게 바라고 바랬던 아이들. 물려드는 구조배와 직승기들을 보며 철석같은 믿음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은 그들대로 지지도가 떨어질가보아 여론판리에 나 신경을 썼다. 고작 《정부》가 한 일

인간의 정과 량심을 짓밟는 《정권》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크다는 말이 있다. 퍼어나는 꽃망울과도 같은 아이들의 작은 가슴속에 지식의 샘을 주고 열정의 녀를 심어주며 인륜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스승에게 있어서 제자들이아말로 혈분이 못지않게 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하기에 이번 《세월》호참사를 두고 남조선에서 그 누구보다 가슴을 태우며 비애와 슬픔, 경악과 분노에 잠긴것이 바로 유가족들과 함께 교원들이였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더는 볼수 없다는 상실감이, 그 다음은 무엇인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대렬인들을 잘하지 못해 아이들을 죽인것만 같은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눌렀다. 그래서 사고당일 구사일생으로 구원되었던 교원들은 《나만 구조됐다.》는 죄책감에 모래져 자살의 길을 택했고 그러한 그의 죽음은 사람들의 가슴을 더더욱 허비며 교육자들의 량심에 깊은 상처와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번의 대형참사가 단순한 사고나 재난이 아니라 얼마든지 살수 있었던 생명을 제대로 구조하지 않아 죽음으로 떠민 인제, 관제라는것이 명확해지면서 슬픔은 경악으로, 걷잡을수 없는 분노로 번지고말았다. 결국 아

이들을 차디찬 바다물속에 고스란히 수장해버린 《정부》의 무태용, 무책임에 강력히 항의하는 가슴속에 지식의 샘을 주고 열정의 녀를 심어주며 인륜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스승에게 있어서 제자들이아말로 혈분이 못지않게 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이들이아말로 쫓다온 제자들과 동료들을 무능한 《정부》때문에 졸지에 잃은 또 하나의 《유가족》이기때문이다. 탐욕스런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권력,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등 하나부터 열가지 진상을 낱알이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볼수 없는 것이 교원들의 심정이며 더는 아이들이 욱되지 않게 잘 못하는 《정부》, 잔인하고 몰인정한 《대통령》을 갈아엎고있는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마음인것이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권》은 분노한 민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제자들에 대한 스승들의 정과 량심을 존중할 대신 오히려 무자비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 무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세월》호 희생자추모회와 시위행진이 벌어지는 곳곳에 수백명의 경찰들을 배치하는가 하면 청

와대 제시관에 《박근혜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전교조의 교원들을 색출한다. 그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다 하며 살벌한 탄압풍경을 펼치고있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15년동안 합법로조로 활동해온 전교조의 설립취소 여부를 지방자치선거 보름된 선고하겠다고 공식발표하였다.

앞에서는 《대국민사과》요 뭐요 하며 《《세월》호참사의 최고책임자가 《대통령》》이라고 눈물까지 흘리며 곤잘 외우고 뒤돌아서서는 그 책임을 묻는 교원들을 징계하겠다. 전교조를 아예 없앴다고 열을 올리니 현 당국자의 기만성과 행렬을 너무나도 뚜렷이 보여주고있지 않은가.

인간의 참된 량심과 정을 짓밟는곳엔 압력과 파멸의 락조가 끼끼기 마련이다.

스승과 제자들사이에 맺어지는 의리와 정마저 총칼로 끊어버리려는 불륜, 불의의 《정권》은 기필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아이들을 이대로 가슴에 물음수 없습디다.》라는 격노의 웨침이 높이 울려나오는 가운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할것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여 지금 남조선전역에서 초불로 타오르는 민심의 거세찬 분노가 그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김 옥 경

교원들에 대한 탄압책동에 항의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교조직원로 동조합(전교조)이 22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교원들에 대한 괴뢰당국의 탄압책동에

항의하였다. 단체는 교육부가 《세월》호참사 책임이 박근혜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투쟁에 나선 전교조소속 교원들에 대

한 징계조치를 취책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것은 박근혜의 책임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교원들의 반 《정부》투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본사기자

자루속의 송곳은 결코 감출수 없다. 남조선에는 이 단순한 비치를 무시하고 헤엄치다가 되게 랑배를 보는자들이 아직 있다.

최근 청와대가 《KBS》방송 전보국장의 사임을 직접 지시하고 《세월》호사고와 관련한 보도도 《정부》에 유리하게 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폭로되어 개를 리듯 하는 보수집권세력의 가공한 처지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건은 《세월》호침몰사

보수당국의 숨통을 조이는 《KBS》사대

교와 관련하여 당국을 비호하면서 허를 잘못 눌렀다가 《KBS》방송 보도국장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김시곤이 란자의 입에서부터 터져나왔다.

알려진것처럼 《KBS》방송 보도국장자리에 틀고 앉아있던 이자는 지난 5월 초에 《세월》호침몰사고를 《일반교통사고》라고 깎아

내리는가 하면 방송원들이 검은 옷을 입지 말라고 지시하다 못해 실종자가족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망발을 제쳐 여론의 분노를 자아낸 일이 있었다.

이것은 즉시 피해자가족은 물론 사회각계의 비난과 분노를 자아냈으며 이를 규탄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사회여론의 물의를 일으킨 이자의 발언은 퍼져놓고 보면 보수당국을 비호하는 《KBS》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들을 사족하여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한 보도를 《정권》에 유리하게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일부 보

수언론객들이 당국에 아부추종하면서 사태를 외곡날조하는 파정에 나은것이다. 따라서 이번 일이 공정하게 처리되자면 마땅히 청와대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보수당국은 이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또다시 김시곤의 목을 따는것으로 여론의 비난을 독짓하려 하였다.

필요할 때에는 실직 썰매자가 정작 사태를 불리해지자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당국의 처사에 이자가 가만있을리 만무하였다.

이자는 사임하는 날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환영 《KBS》사장이 전화를 걸어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자기에게 사임할것을 강박하였다

고 하면서 《이건 《대통령》의 뜻이고 이를 거역하면 자기

수언론객들이 당국에 아부추종하면서 사태를 외곡날조하는 파정에 나은것이다. 따라서 이번 일이 공정하게 처리되자면 마땅히 청와대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보수당국은 이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또다시 김시곤의 목을 따는것으로 여론의 비난을 독짓하려 하였다.

필요할 때에는 실직 썰매자가 정작 사태를 불리해지자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당국의 처사에 이자가 가만있을리 만무하였다.

이자는 사임하는 날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환영 《KBS》사장이 전화를 걸어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자기에게 사임할것을 강박하였다

고 하면서 《이건 《대통령》의 뜻이고 이를 거역하면 자기

《KBS》사대

입하고 압력을 가한 사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 이후 청와대의 지시로 단 한차례도 당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사실, 청보원의 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한 내용도 《정부》에 유리하게 축소보도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줄줄이 까발했다.

사실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여 박근혜의 사과와 책임이자 처벌,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 김환영 《KBS》방송 사장의 해임 등을 요구해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17일 오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보도와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한 청와대를 규탄하면서 《방송을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청와대의 하수인이 아니라는것을 립증하

《누가 누구를 징계하는가?》, 박근혜 《정부》야말로 징계받아야 할 대상

남조선의 학부형들 강력히 항의

남조선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의하면 남조선의 학부형들이 시국선언참가자들에 대한 괴뢰패당의 부당한 징계조치를 규탄하여 항의운동을 벌렸다.

얼마전 괴뢰교육부는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묻고 박근혜퇴진을 주장하는 글을 청와대홈페이지에 올린 교원들을 징계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한편 《법위반》이니 뉘니 하며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원 1만 5 000여명에 대한 검토놀음을 벌려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학부형들은 26일 《누가 누구를 징계하는가?》라는 제

목의 글을 청와대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들은 《세월》호사태에서 거꾸로 뒤집힌 교육을 보았다고 단죄하였다.

배가 침몰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한것은 뒤집힌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하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과 교원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원들을 징계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불법과 무능, 탐욕으로 《세월》호참사를 조작한 박근혜 《정부》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징계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